

김기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조선족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TV 예능을 보고, 한국에 다녀온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했는데,

좋아하는 아이돌이 생기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여유 시간이 생기자 팬데믹 기간 동안

그들의 무대를 보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즈음 마침내 한국 여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제기가 상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편리하고,

교통, 음식, 쇼핑, 날씨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러 간 날,

환전 기계가 고장 나 어려움을 겪던 중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녀들이

친절히 도와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도움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준 편의점 직원,

뱀을 선물해준 배바집 사장님, 한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 등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매번 한국을 떠날 때마다 아쉬움이 크고,

돌아가 후에도 한국에서의 날들이 계속 그리웠습니다.

중국에는 '서울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면 쉽게 그 기역을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개별한 지하철, 따뜻한 버스 정류장,

거리마다 들리는 K-pop, 맑은 날씨,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설렘.

이런 모든 것이 제기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양필수 수업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는
팀을 구성하여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협동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개선해 나가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럭키세븐의 프로젝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사회에 알려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협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글을 전달받아
럭키세븐이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재된 네 개의 글은 모두
'나눔손글씨 세계적인 한글'
폰트가 적용되었습니다.

2, 3, 4페이지의 글은
피파고 번역 및 임의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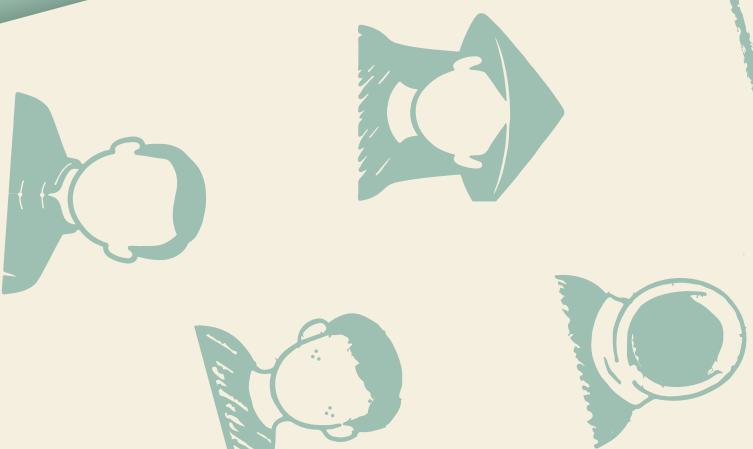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었다면, 티 알이카기

 luckyseven.rw

팀 럭키세븐
김예지 전채린 이다영
김예원 김솔리 원종은

서울여자대학교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
럭키세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나의 꿈

김대호

나는 미래에 한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다. 중학생 때부터 당구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간다. 당구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나는 한국에 온후에 당구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도 당구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에 당구장을 찾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한국에서 직접 당구장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당구장은 편안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외국사람과 한국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다양한 이벤트도 열고 싶다. 이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영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언제나 나만의 당구장을 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나의 중국 생활과 한국 생활

박지희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1년 동안 지냈는데, 그 때는 제게 가장 깊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친구들과 함께 상사의 구박과 생활고를 겪으며 작은 방을 함께 빌려 살았고, 일을 그만둔 후에는 적잖은 새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중요한 때마다 불안에 떨던 날들이었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정말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지내며 점차 후회가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친절했고, 고향 음식도 찾을 수 있어 연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수원시 국제청소년센터라는 훌륭한 센터에서 한국어와 예절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세심할 뿐 아니라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여학생과 여성교사들을 위해 무료 여성용품 박스도 마련해주셨죠. 이런 배려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지칠 때면 간단한 게임도 함께하고, 한국에 막 도착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현지 음식과 유명 관광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위문기가 되었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한국 생활

차단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차단양이고 중국에서 온 중학생입니다. 제 꿈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언어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전명된 수많은 상품들을 보고 이름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저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언어교환 활동에 참여했고, 한국어 말하기 심화 수업도 등록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센터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장소를 탐방하고, 송겨전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공부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고,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소중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더 성장하고,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가 다가가고 싶습니다.